| 현불 논단 |

지금도 늦지 않았다



정운 스님
동국대 강사

中불교 발전 견인했던 구법승들
법현 스님 63세에 인도 유학길
79세 中서 전법활동 한 불도징
선무외 삼장, 80세에 밀교 전해

고령화 사회 진입… 승속 동일
출가자의 감소 · 고령화 '심각'

최고령에도 전법매진한 구법승
현실 개탄만 말고 다시 전법을

중국에 불교가 발전된 경우는 두 가지이다. 먼저는 인도와 서역 승려가 중국으로 들어와 경전을 한역하며 전법하였고, 다음은 중국의 승려가 법을 구하고자 인도로 구법을 다녀와 경전을 한역한 경우이다. 중국에서 인도로 구법을 다녀온 최초의 승려가 법현(法顯, 337~422) 스님이다.

법현 스님은 어느 날, 세수를 하다가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하릴없이 늙어감을 한탄했다. 스님이 인도행을 결심한 것은 당시 중국에 율장이 한역되어 있지 않아 율장을 구하기 위함이었다. 법현 스님 이전에도 수많은 스님들이 실크로드를 통해 인도로 구법을 떠났으나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길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법현은 399년, 4명(혜경 · 도정 · 혜응 · 혜외)의 스님과 인도를 향해 떠났다. 스님이 인도로 떠날 때가 세납 63세였다. 법현 스님 일행은 타클라마칸 사막을 횡단하였다. 이 사막은 '한번 들어가면 살아나올 수 없다' 는 뜻으로 험난한 곳이다. 법현 스님이 이 사막을 건너면서 이렇게 말했다.

"사막에는 악귀와 열풍이 있는데, 이들을 만나면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다. 풀과 나무는커녕 하늘에는 새 한 마리 없고, 땅에는 짐승 한 마리 없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사막뿐이었다. 뜨거운 모래바람이 휘몰아치는 막막한 여로에서 오롯이 지표가 되어주는 것은 언제 죽었는지 모를 죽은 자의 해골이 길잡이가 되어주었다."-〈법현전〉

험난한 길을 걸은 지 3년 만에 북인도에 도착했다. 법현 스님은 산스크리트어를 공부하고, 인도 및 스리랑카를 경유해 공부해 마쳤다. 법현은 중국을 떠난 지 14년 만에 바닷길을 통해 귀국했다. 이후 법현은 수년간 〈대반열반경〉 · 〈마하승지율〉 등을 한역하였고, 〈불국기(佛國記)〉를 저술하였다. 그런데 이보다 더 열정의 승려가 있다. 중국불교의 기반을 다진 동진 도안(道安, 312~385)의 스승인 불도징(佛圖澄, 233~348)스님이다.

불도징은 구마라집과 같은 고향인 귀자국 출신으로 79세에 전법의 뜻을 품고 중국으로 들어왔다. 불도징은 낙양에 오자마자 사찰을 세우려는 즈음, 후조(後趙, 흉노족이 세운 나라)의 석륵왕의 귀의를 받았다. 이후 석호왕(석륵의 조카)의 절대적 존경을 받으며, 20여년 간 국사 역할을 하였다. 또 한분을 소개한다. 선무외(善無畏, 637~735) 삼장이다. 진언(眞言) 계통의 밀교 경전이 유입되어 번역되기 시작한 것은 선무외 삼장에 의해서다. 선무외는 중인도 오리샤(Orissa)의 국왕으로서 왕위를 버리고 출가했다. 선무외가 서역을 거쳐 천산북로를 통해 장안으로 들어왔을 때가 세납 80세였다. 중국에 밀교를 전하고자 하는 일념이었다. 선무외는 현종의 영접을 받았고, 흥복사(興福寺)와 서명사(西明寺)에 거주하며 밀교경전을 한역하였다.

이 사회가 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당연히 불교계도 유사한 현상인데다 젊은 출가자마저 감소하고 있다. 게다가 기도 · 경전읽기 · 법회참석 않는 '3무(無) 불자' 가 증가 추세라고 한다.(〈현대불교〉 5월 21일자) 이 현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 없지 않은가!

승속을 막론하고, 60대만 되어도 '이 나이에 뭘 하겠어' 라고 한다. 법현 스님은 60대 초반에 구법을 떠나 70대에 산스크리트어를 공부했고, 80대에 경전을 번역했다. 불도징은 불교도 제대로 인식되지 않은 중국에 포교 원력을 세우고, 타국에 들어왔을 때가 79세였다. 선무외는 중국에 밀교가 전해지지 않음을 한탄하고 왕위를 버리고 실크로드를 통해 중국에 들어왔을 때가 80세였다. 세 스님들은 현대의 신체 나이로 보면, 최고령이다. 최고령에도 전도의 뜻을 품고, 타향에서 전도했던 스님들을 귀감으로 삼아보자.



담마끼띠 스님의
다문화법당서 보낸 편지

한국 속 작은 스리랑카

아산에 마하위하라 사찰이 건립된 지 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19로 대외 활동은 못하지만 개별적으로 수행과 부처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꾸준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으로 많은 행사와 활동을 진행하고 있기에 지역과 국가라는 공간의 경계를 넘어 더욱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마하위하라는 오롯이 스리랑카 및 이주민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끼리' 가 아닌 '함께' 하는 곳으로 한국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하위하라에는 다른 사찰에서 볼 수 없는 온실이 있습니다. 이 곳에 바나나, 파파야, 망고 등의 열대과일나무를 재배하고 있어 독특한 풍경을 접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하위하라에는 불교의 성스러운 나무인 보리수가 있습니다. 스리랑카 아누라다푸라에 있는 스리마하보디 사원에서 가지를 수여 받아 한국에 모셨기에 더욱 의미가 있고 뿌듯합니다.

이 마하위하라 보리수는 2017년 한국 · 스리랑카 수교 40주년을 기념한 것입니다. 그동안 마땅한 공간이 없어 대법당 화분에 보리수를 모셨지만, 이번 4월 18일 포살일을 맞아 온실로 이전 식재하는 행사를 하였습니다.

'마하위하라 보리수' 가 온실에서 잘 자리 잡고 튼튼히 뿌리 내려, 무럭무럭 커나갈 수 있도록 많은 불자님들의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부처님의 깨달음을 상징하는 보리수 참배를 통해 더욱 정진에 매진하시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최근에는 마하위하라 사원의 명품 '걷기 명상길' 이 완성되었습니다. 사원을 한 바퀴 두루 둘러보면서 한발 한발 알아차림의 길로 걸어가는 사색에 적합한 모랫길로 되어 있습니다. 사원에 방문하시어 반드시 명품 '걷기 명상길' 을 걸어 보시길 권유합니다.

마하위하라 사원은 스리랑카인들 및 이주민들 중심으로 포살법회를 매월 셋째 일요일에 지냅니다. 그리고 한국분들을 위한 포살법회는 매주 셋째 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낮 12시 30분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계정혜(戒定慧)를 중심으로 8계를 지키면서 하루를 보내는 습관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날입니다. 이는 불법승과 함께하는 날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평소 본인이 하던 일상의 행위를 금하고 부처님 말씀대로 보내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요청에 의하여 온라인 빠알리어 강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강의는 온라인 수업(ZOOM)으로 진행됩니다.

6월 9일 시작했고,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진행하며, 강의 총 기간은 10개월이 될 것입니다. 강의에 사용되는 교재는 스리랑카에 유명한 빠알리어 교수이신 아상가(Asangar) 교수의 새로운 빠알리어 교재를 담마끼띠 스님께서 번역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2021년 6월 9일 저녁 8시 전에 아래 줌 회의 링크로 PC 또는 모바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마하위하라는 국경을 넘어 부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부처님의 사상이 이 세상에 오래 머무르길 기원하는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많은 불자분들의 따뜻한 사랑과 후원을 바랍니다.

〈충남 아산 마하위하라사원 주지〉

社 說

'애국가' 표준수화 개선 시급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인 '애국가' 가 청각장애인들에게는 특정 종교에 편향적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지적이다. 애국가 1절의 '하느님이 보우하사' 라는 구절에 대한 수화통역 때문이다.

'하늘(天)' 에 어원을 둔 보통명사이자, 전통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이 단어가 수화통역을 거치고 나면 기독교 신앙의 유일신인 '하나님' 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정 종교계나 일부 지역, 혹은 일부 단체만이 사용하는 수화가 아니라, 한국 표준수화규범 제정 추진위원회의 '수화로 하는 애국가' , 국립국어원과 한국농아인협회가 발간한 '한국수화사전' 에 근거한 문제제기여서 더욱 우려스럽다.

불자 청각장애인들은 이미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도 참담하다. 우리나라는 2016년 '한국수화언어법' 이 제정된 후 공식 정부행사에 수화통역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공식행사에서 애국가 통역이 진행될 때마다 불자 청각장애인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이유다.

표준수화 제정 이전인 1900년대 후반 농아학교에서 애국가 수화를 배운 청각장애인들은 애국가의 '하느님' 을 '하늘' + '님' 으로 배우고 사용해 왔다는 점도 심각하게 들여다 봐야 한다. 이미 사용되고 있던 바람직한 표현이 특정종교의 색채를 지닌 단어로 왜곡된 셈이기 때문이다.

공식 수화통역으로 애국가를 접하는 청각장애인들이 종교자유를 침해당하거나 종교적인 이유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기후위기 대안, 불교에 있다

기후위기는 우리 삶의 대대적이고 급격한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삶의 대대적인 전환은 결국 대국민적인 인식변화가 필요하다는 뜻이며 이는 정책과 제도화를 통해 산업의 전환, 사회적 전환을 이끄는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문제다.

따라서 6월 5일 세계환경의 날을 맞아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이 발표한 담화문은 인류가 직면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대사회적이고 대국민적인 차원의 실천 방향이 담겼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특히 환경위원회가 제시한 전환, 지족, 순환, 참여 4가지 전략기조는 향후 10년간 종교계와 국민들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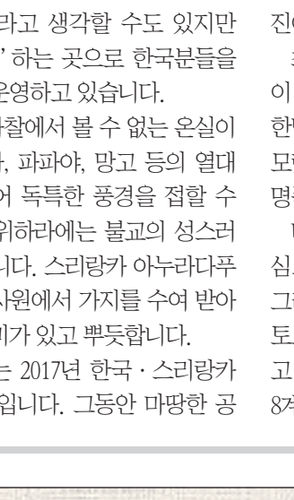
인류를 위협하는 기후위기의 대안이 불교적 세계관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동안 수많은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강조해 왔던 지점이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변화를 우리 불교계가 이끌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기후위기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불교적 세계관의 핵심은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돼 있다는 것이며 인간과 자연이 둘이 아니라는 인드라망의 가르침이다. 이제는 부처님의 살아있는 가르침을 현대적 언어로 풀어내고 구체적인 대안의 형태로 우리 사회에, 그리고 인류에 제시해야 하는 시점이다.

조계종이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첫 발을 내딛은 만큼, 우리 불자들도 보다 실질적으로 삶의 변화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불자들의 실천이야말로 지구공동체의 존속을 위한 사회참여를 이끌어 내는 기폭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계종 담화문을 계기로 더 많은 불자들이 기후위기에 관심을 갖고 각기 자리한 상황에서 삶의 변화를 주도해 나가길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불교TV



부처님의 품안으로 극락왕생!
내가족에게 가피를 내리소서
불교식 장례를 통한
아름다운 마무리

BTN불국토상조

불자전용
불국토 450
불교식 장례의 표본을 추구하는 고품격 장례서비스

불자전용
불국토 330
영가의 상품상생을 위한 탁월한 선택

스님전용
열 반 300
전륜성왕의 예법으로 극락가는 구름 길



불교식 장례로 극락왕생을 인도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가입상담 02)3270-3377 장례접수 1661-2353

BTN불국토상조
● 당사는 할부거래법 및 공정거래위원회 규정을 준수하며 해약 환급금은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따라 환급이 가능하고, 고객 불입금을 국민은행이 안전하게 예치하고 있습니다. ● 공인회계사(삼덕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았습니다.
● 2020년 12월 31일 기준 총 고객 환급의무액 15,455,450,000원, 상조 관련 자산 19,991,320,000원입니다. ● 대표이사 : 구본일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97 4층 ● 홈페이지 : www.btnlife.co.kr ● 선불식 할부거래업등록 : 서울-2011-제68호